추 모 사

오늘 우리가 추모하고 있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정부가 없던 시절 동아일보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해방직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 이념적 통합을 추구하면서 자유민주국가의 건설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1890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셔서 18세가 되던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교와 메이지대학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고하 선생님의 7년간의 일본 대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간이 선생님의 세계관, 인생관이 형성된 중요한 시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도일하기 전에 서울 YMCA에서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도 세이소쿠영어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조선 유학생 학우회 총무를 맡아 활동했습니다. 이때 학우회 회장을 맡고 있던 조만식 선생과 깊은 교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하 선생님은 조만식 선생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은 학우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나갔지. 메이지대학 동창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조를 같이 하였지. 그 두터움이란 세상 사람들의 상상 밖이었다.”(1935.6. 삼천리)

이 밖에도 많은 유학생들과 요시노 교수를 비롯한 일본인 지식인들의 만남이 이뤄진 곳이 동경 한인기독교 청년회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고하는 YMCA에서 개최하던 강연은 물론 도쿄 한인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요시노와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시노는 당시 도쿄 분향 교회를 시무하던 에비나 단조 목사로부터 영향을 받고 민본주의 사상에 심취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기초한 요시노의 민본주의 사상은 송진우뿐만 아니라 대정(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에 유학한 조선인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YMCA에서의 지적 활동을 통해 고하 선생님은 YMCA의 이념과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습득하게 되었고 자유와 평등의식을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고하 선생이 기술한 많은 글들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자유권과 생명권, 자유연애 지지,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한국민주당 정강정책 등 수많은 글에서 그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시절에 형성된 고하 선생님의 사상과 인품, 교우 관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5. 8.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삼환